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 경제주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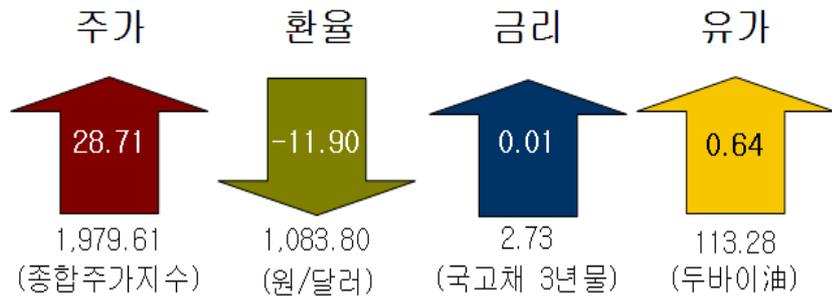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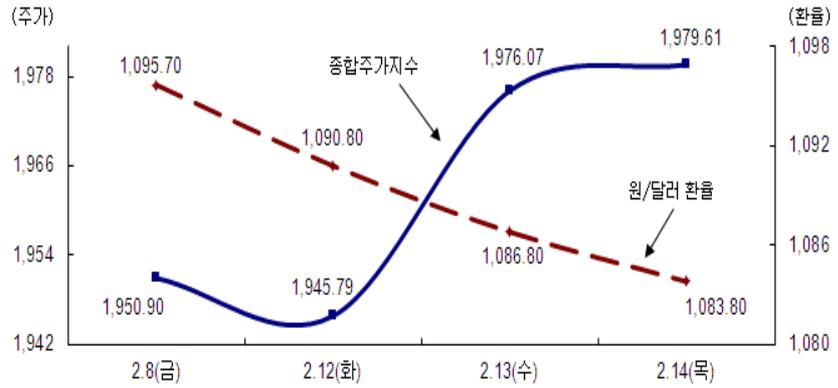
Weekly Economic Review

□ 한국경제의 중진국 함정 탈출 전략

- 4만 달러 도약에 성공한 9개국의 7가지 공통점

Better than  
the Best!

週間 主要 經濟 指標 (2.8~2.15)



차 례

주요 경제 현안 .....	1
□ 한국경제의 중진국 함정 탈출 전략 .....	1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	16

□ 본 자료는 기업 경영인들을 위해 작성한 국내외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분석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원의 공식의견이 아닌 연구자의 개인 견해를 밝히며, 보고서 인용 시에는 반드시 출처를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 괄 : 유 병 규 경제연구본부장 (2072-6210, bkyoo@hri.co.kr)  
 □ 작 성 : 김 동 열 수석 연구위원 (2072-6213, dykim@hri.co.kr),  
 이부형 수석연구위원, 조호정 선임연구원, 정민 선임연구원.

### □ 한국경제의 중진국 함정 탈출 전략

#### ■ 떨어지는 '선진국 진입'

최근 잠재성장률이 3%대 중반까지 떨어지고, 실질성장률과 잠재성장률의 격차가 커지면서 저성장이 계속되는 등 '중진국 함정'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향후에도, 내수 부진과 위기 반복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1%대까지 하락하는 저성장이 계속되는 비관적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선진국 진입은 불가능해질 것이다.

#### ■ 4만 달러 도약에 성공한 9개국의 7가지 공통점

인구 1천만 명 이상으로 4만 달러 도약에 성공한 선진 9개국은 ①미국, 일본, 호주처럼 무역의존도 50%미만인 '내수형' 선진국, ②네덜란드, 벨기에처럼 무역의존도 100%이상인 '외수형' 선진국, ③독일, 스웨덴, 프랑스, 캐나다처럼 무역의존도가 50%~100%인 '내외수균형' 선진국으로 구분되며,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 도달에 평균 9.6년, 다시 4만 달러 도달에 평균 5.6년 걸렸다.

4만 달러 선진국들의 공통점을 뽑아 보면, 첫째, 실질GDP증가율이 하락하지 않고 오히려 올라갔다. 3만 달러 도약기에 평균 2.44%였으나, 4만 달러 도약기에는 평균 2.48%로 더 높아졌다. 둘째, 재정 건전성이 좋았다. 4만 달러 시점에서 일본과 벨기에를 제외한 7개국 모두 국가채무비율이 60%대로서 안정적이며, 재정적자 비중도 일본과 미국을 제외하면 3%이내에 있었다. 셋째, 대외경쟁력을 반영하는 경상수지가 균형을 이루었다. 미국과 호주를 제외한 7개국은 경상수지가 균형 수준이거나 흑자를 내고 있었다. 넷째, 서비스업 비중이 높아졌다. 3만 달러 도약기에 평균 68%, 4만 달러 도약기에 71%로 점차 커지고 있었다. 다섯째, 고용률이 7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여섯째, 합계출산율은 9개국 평균 1.7 이상으로 높으며, 마지막으로, 투명성 지수(TI)는 평균 8.0 이상으로 높은 신뢰와 사회적 자본을 반영하고 있다.

#### ■ 4만 달러 도약에 실패한 나라들(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의 교훈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는 3만 달러 도약 이후 국내외 경기침체와 경제활력 감소에 따라 성장률이 급락하고 4만 달러 도약에 실패했다. 더욱이 내수 및 제조업 비중 급감, 재정 건전성 악화, 경상수지 적자뿐만 아니라, 출산율과 투명성 지수(TI)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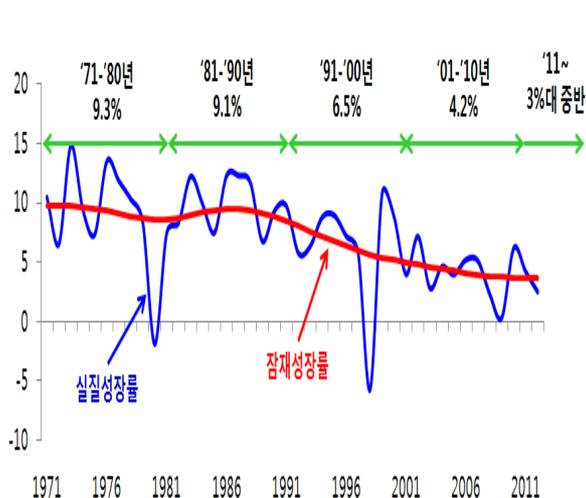
#### ■ 4만 달러 선진국 도약을 위한 전략과 목표 : '선진국 7개 공통점'을 목표로

무역의존도가 높지만 제조업이 강한 한국은 내·외수가 조화를 이룬 '내외수균형' 선진국(독일, 스웨덴 등) 모델을 추구해야 한다. 4만 달러 도약의 선결조건으로서 성장잠재력 제고, 재정 건전성, 경상수지 흑자 등 경제의 기초체력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서비스업의 개방과 경쟁력 제고를 통해 부가가치 비중을 현재 58%에서 70%로 확대하고, 노동시장 유연화와 일-가정 양립 정책을 통해 고용률을 70%로 높여야 한다. 또한, 합계출산율도 선진 9개국 평균인 1.7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전자정부 고도화와 정보공개 등을 통해 투명성 지수(TI)도 8.0이상으로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

## 1. 멀어지는 '선진국 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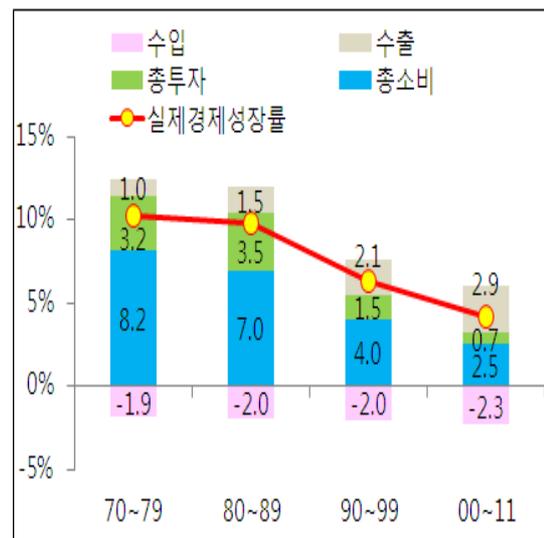
- (저성장과 중진국 함정) 1990년대 6.5%에 달했던 잠재성장률이 최근 3%대 중반까지 하락했고 잠재성장률을 하회하는 저성장이 계속되면서, 국민소득은 2007년 이후 계속해서 2만 달러 초반에 머물러 '중진국 함정'이 우려됨
  - 1990년대 6.5%, 2000년대 초반 4~5%에 달했던 잠재성장률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3%대 중반까지 떨어졌으며, 2007년 처음 2만 달러를 넘어선 1인당 명목 GDP는 2013년 현재 6년 연속 2만 달러 초반에 머물고 있음
- (외풍에 취약한 경제구조) 수출의 성장기여도는 계속 증가하고, 투자와 소비 등 내수의 성장 기여도는 계속 위축됨에 따라, 외부 경기변동에 취약한 경제구조의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음
  - 수출의 성장 기여도는 상승 추세를 지속하는 반면 소비와 투자 등 내수 부문의 성장 기여도는 시간이 갈수록 위축되고 있음
    - 소비의 성장기여도는 지속 하락하여 2000년대에는 2.5%p에 불과한 실정이고, 총투자의 성장 기여도는 2000년대에 0.7%p로 하락
    - 반면 수출의 성장기여도는 고도성장기('70~'79) 연평균 1.0%p에서 상승 추세를 보여 2000년 이후에는 2.9%p까지 상승

< 잠재성장률 급락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계산.  
주 : HP필터링을 이용.

<수요 부문별 성장기여도 추이>



자료: 한국은행, 현대경제연구원  
주: 부문별 성장기여도(%)는 기간중 연평균

- (떨어지는 '선진국 진입') 시나리오별로 한국경제의 잠재 성장률과 1인당 명목GDP 추이를 추계해본 결과, 세 번째 시나리오(비관적)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한국경제의 선진국 클럽 진입은 자꾸 멀어지고 있음
- (시나리오 1: 낙관적) 내외수 선순환, 경제구조 고도화,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현재보다 잠재성장률이 중장기적으로 상승할 경우
  - 우리 국민들의 1인당 소득은 2017년에 3만 달러, 2021년에 4만 달러 달성이 가능하며, 선진국과의 격차를 좁힐 수 있음
  - 2021년까지 잠재성장률은 4%대를 유지
- (시나리오 2: 중립적) 3%대의 잠재성장률을 유지하며 성장할 경우
  - 우리 국민들의 1인당 소득은 2019년에 3만 달러, 2025년에 4만 달러 달성이 가능하며, 선진국과의 격차는 유지될 것임
  - 2025년까지 잠재성장률은 3%대 수준을 유지
- (시나리오 3: 비관적) 내·외수 부진과 위기 반복으로 국가 전반의 활력이 저하되어 잠재성장률은 계속 하락하며, 실질성장률은 잠재성장률을 하회함
  - 우리 국민들의 1인당 소득은 2020년은 되어야 3만 달러에 도달하고 2032년에야 4만 달러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선진국과의 격차는 더 벌어지고, 선진국 클럽 진입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2032년까지 잠재성장률은 1%대로 하락

< 시나리오별 3만 달러, 4만 달러 도달 시점과 잠재성장률 >

	잠재 성장률	1인당 명목GDP	
		2만 달러 → 3만 달러	3만 달러 → 4만 달러
낙관적 시나리오	4%대	2007년 → 2017년 (10년)	2017년 → 2021년 (4년)
중립적 시나리오	3%대	2007년 → 2019년 (12년)	2019년 → 2025년 (6년)
비관적 시나리오	1~2%대	2007년 → 2020년 (13년)	2020년 → 2032년 (12년)

주 1) 잠재성장률은 기간 1인당 국민소득 달성기간의 평균값임.

2) 1인당 명목 GDP(달러 기준) 추세에는 과거 원/달러 환율의 변화가 반영되어 있음.

## 2. '4만 달러' 도약에 성공한 9개국<sup>1)</sup>의 7가지 공통점

- (3가지 길) (1)무역의존도 50% 미만의 '내수형' 선진국, (2)무역의존도가 100%를 넘는 '외수형' 선진국, 그리고 (3)무역의존도 50%~100%의 '내외수 균형' 선진국의 3가지 유형으로 분류
  - (내수형 선진국) 미국, 일본, 호주는 4만 달러 도약기를 기준으로 무역의존도가 50%미만으로서, 내수 중심의 성장전략을 구사함
    - 무역의존도가 낮은 국가들은 인구가 많거나, 국토면적이 넓은 특징을 지님
  - (외수형 선진국) 네덜란드, 벨기에는 4만 달러 도약기를 기준으로 무역의존도가 100%이상으로서 무역(수출+수입) 규모가 GDP 규모를 크게 초과
    - 두 나라는 국토가 좁고 인구도 1,000만 명 정도에 그친다는 한계를 지님
  - (내외수균형 선진국) 프랑스, 캐나다, 독일, 스웨덴은 4만 달러 도약기를 기준으로 무역의존도가 50%이상 100%미만으로서, 내·외수가 균형을 이룸
    - 강한 제조업을 바탕으로 경상수지도 균형을 이루고 있음

< 4만 달러 선진 9개국의 무역의존도 추이 >

(%)

	내수형 선진국			내외수균형 선진국				외수형 선진국	
	미국	일본	호주	프랑스	캐나다	독일	스웨덴	네덜란드	벨기에
3만달러 도약기	21	18	39	48	69	48	60	117	136
4만달러 도약기	24	16	41	55	70	67	77	132	155
2010년	29	29	41	53	61	88	94	149	157

자료 : UN.

주 1: 무역의존도 = (수출+수입)/GDP. **한국의 2010년 현재 무역의존도는 102%**에 달함

주 2: 내수형 = 무역의존도 50%미만, 내외수균형 = 무역의존도 50%-100%, 외수형= 100%이상

- (7가지 공통점) 인구 1천만 명 이상, 소득 4만 달러 이상 선진 9개국을 분석해 본 결과,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 도달에 평균 9.6년, 3만 달러에서 4만 달러 도달에 평균 5.6년이 소요되었으며, 7가지 공통점을 지니고 있었음

1)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캐나다, 호주, 네덜란드, 벨기에, 스웨덴 등 9개국. 스웨덴은 인구가 950만 명 정도로 1천만 명에 미달하지만, 북유럽 선진국을 대표한다는 의미에서 포함시킴. 영국은 최근 국민소득이 4만 달러에서 3만 달러로 하락하여, '인구 1천만, 소득 4만 달러 이상 선진국' 그룹에서 제외함

- 첫째, 실질GDP증가율이 하락하지 않고 오히려 올라갔으며, 둘째, 재정 건전성이 좋았고, 셋째, 대외경쟁력을 반영하는 경상수지가 균형을 이루었으며, 넷째, 서비스업 비중이 높아졌고, 다섯째, 고용률이 70% 이상이며, 여섯째, 합계출산율은 1.7 이상, 일곱째, 투명성 지수(TI)는 평균 8.0 이상이었음

< 1인당 GDP 4만 달러 도달 시점과 기간 >

	1인당 명목GDP			도달기간		실질GDP 성장률	
	2만 달러	3만 달러	4만 달러	2만⇒3만	3만⇒4만	2만⇒3만	3만⇒4만
일본	1987년 (20,367.2)	1992년 (30,973.0)	1995년 (42,516.5)	5년	3년	4.4%	1.0%
미국	1988년 (20,820.8)	1997년 (30,541.3)	2004년 (40,401.2)	9년	7년	2.9%	3.2%
스웨덴	1987년 (20,282.7)	1992년 (30,587.9)	2004년 (40,592.7)	5년	12년	0.8%	2.9%
네덜란드	1991년 (20,201.8)	2003년 (33,241.5)	2006년 (41,497.7)	12년	3년	2.6%	2.6%
독일	1991년 (22,692.7)	1995년 (30,920.7)	2007년 (40,463.1)	4년	12년	1.2%	1.6%
프랑스	1990년 (22,047.4)	2004년 (34,020.3)	2007년 (41,849.8)	14년	3년	1.8%	2.2%
캐나다	1989년 (20,412.3)	2004년 (31,103.9)	2007년 (43,306.3)	15년	3년	2.6%	2.7%
호주	1995년 (20,843.8)	2004년 (32,339.5)	2007년 (44,654.6)	9년	3년	3.8%	3.5%
벨기에	1990년 (20,410.4)	2003년 (30,155.5)	2007년 (43,486.0)	13년	4년	1.9%	2.6%
평균	-	-	-	9.6년	5.6년	2.44%	2.48%

자료 : IMF 자료를 토대로 현대경제연구원 계산.  
 주 : 도달기간은 1인당 명목GDP의 최초 도달 시점 기준. 실질GDP 증가율은 기간 평균.  
 주 : 한국의 실질GDP증가율은 2007년 이후 2011년까지의 연평균 증가율

① (성장률 증가) 선진 9개국은 3만 달러 도약기에 비해 4만 달러 도약기에 실질GDP 증가율이 평균적으로 더 높아지는 특징을 보임

- 실질GDP 증가율 추이를 보면, 3만 달러 도약기에 평균 2.44%였으나 4만 달러 도약기에는 평균 2.48%로 높아졌음
- 1인당 국민소득을 높이고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혁신과 성장잠재력 제고를 통해 성장률을 가속시킬 필요가 있음
- 단, 일본과 호주는 3만 달러 도약기보다 4만 달러 도약기의 실질GDP 증가율이 더 낮아졌음

- ② (재정 안정) 4만 달러 시점에서의 국가채무 비율은 일본(91.2%)과 벨기에(84.0%)를 제외한 나머지 7개국의 경우 GDP의 60%대로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재정적자 비중도 일본과 미국을 제외하면 안정적
- (국가채무) 호주의 국가채무 비중은 10% 미만에 불과하며, 네덜란드와 스웨덴은 1990년대 중반의 금융위기 이후 안정을 되찾아 40%대로 감소했고, 미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등은 60%대로 관리되고 있음
    - 다만, 일본은 1991년 이후 버블 붕괴로 인한 경기침체 시작으로 국가채무 비중이 4만 달러 도달 시 91.2%까지 상승했으며, 벨기에도 84.0%로 높음
    - 호주는 2만 달러 도달 시 31.1%에서 4만 달러 도달 시 9.7%로 국가채무비중이 크게 하락했는데, 자원 부국으로서의 강점에 따른 것으로 해석됨
  - (재정수지) 일본과 미국의 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이 4%대로 높은 편이지만, 나머지 7개국은 재정수지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음
    - 일본은 4만 달러 도약 시기에 재정적자 규모가 GDP의 -4.7%에 달함
    - 미국 역시 재정적자 규모가 GDP의 -4.3%로서 매우 높은 수준

< 1인당 GDP 4만 달러 전환 시 국가 재정 상황 변화 >

구분	국가 채무 (GDP 대비 %)			재정 수지 (GDP 대비 %)		
	2만 달러	3만 달러	4만 달러	2만 달러	3만 달러	4만 달러
독 일	39.5 (1991년)	55.6 (1995년)	65.4 (2007년)	-2.9	-9.7	0.2
일 본	72.5 (1987년)	71.2 (1992년)	91.2 (1995년)	-0.4	0.6	-4.7
프랑스	35.2 (1990년)	65.1 (2004년)	64.2 (2007년)	-2.5	-3.6	-2.8
미국	61.9 (1988년)	67.8 (1997년)	68.3 (2004년)	-3.7	-1.0	-4.3
캐나다	72.3 (1989년)	72.6 (2004년)	66.5 (2007년)	-5.0	0.9	1.4
호주	31.1 (1995년)	12.0 (2004년)	9.7 (2007년)	-2.0	2.1	1.3
네덜란드	88.3 (1991년)	52.0 (2003년)	47.3 (2006년)	-7.4	-3.2	0.5
스웨덴	64.2 (1987년)	74.0 (1992년)	49.9 (2004년)	3.3	-8.9	0.4
벨기에	125.7 (1990년)	98.3 (2003년)	84.0 (2007년)	-6.8	-0.2	-0.1

자료 : IMF.  
주 : 각 시점의 GDP 대비 비중임.

③ (경상수지 흑자) 미국과 호주를 제외한 7개국은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는 등 대외무역에서의 높은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음

- 일본, 독일, 캐나다, 네덜란드, 스웨덴 등은 4만 달러 도약기에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3만 달러 도약기에 비해 더 강력해진 산업의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음
- 단, 미국은 기축통화국으로서의 달러 고평가와 제조업 경쟁력 하락으로 대규모 무역적자와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호주는 광물 등 수출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민간부문의 투자 급증에 따른 저축-투자 갭 확대(대외채무 확대)로 경상수지 적자가 확대되고 있음

< 1인당 GDP 4만 달러 전환 시 경상수지 변화 >

구분	경상수지 (10억 달러)		GDP 대비 비중(%)	
	2만 달러 ⇒ 3만 달러	3만 달러 ⇒ 4만 달러	2만 달러 ⇒ 3만 달러	3만 달러 ⇒ 4만 달러
독 일	-25.2	56.9	-1.2	1.9
일 본	75.3	124.7	2.4	2.6
프랑스	15.9	-16.4	1.1	-0.7
미국	-93.4	-419.2	-1.4	-4.0
캐나다	-3.3	17.1	-0.8	1.4
호주	-19.1	-47.3	-4.2	-5.7
네덜란드	16.0	52.4	4.0	8.1
스웨덴	-3.8	10.6	-1.5	3.7
벨기에	11.1	8.5	4.4	2.2

자료 : IMF.  
주 : 각 기간별의 산술 평균임.

④ (서비스업 비중 확대) 4만 달러 선진 9개국의 평균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은 3만 달러 도약기에 68.2%에서 4만 달러 도약기에 71.2%로 증가했으며, 2010년 현재 73.3%로 계속해서 커지고 있음

- 국민소득이 3만 달러, 4만 달러로 상승할수록 제조업 비중은 축소되고 서비스업 비중은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4만 달러 도약기에 미국,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호주는 서비스업 비중이 70% 이상 높게 유지되고 있으며, 미국과 프랑스는 77%로 가장 높음

- 반면, 독일, 일본, 스웨덴은 제조업의 부가가치 비중이 20% 이상을 유지하면서, 상대적으로 제조업 비중인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선진국들의 서비스업 비중 추이 비교 >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비중		
		3만 달러 도약기	4만 달러 도약기	2010년
4만 달러 도약 성공국	독일	65.0	69.0	71.0
	일본	60.0	64.0	71.0
	프랑스	73.0	77.0	78.0
	미국	72.0	77.0	78.0
	캐나다	67.0	66.0	69.0
	호주	70.0	70.0	70.0
	네덜란드	71.0	74.0	74.0
	스웨덴	65.0	69.0	72.0
	벨기에	71.0	75.0	77.0
	평균	68.2	71.2	73.3
4만 달러 도약 실패국	그리스	77.0	-	79
	이탈리아	68.0	-	73
	스페인	67.0	-	72
	평균	70.7	-	74.7
한국		60.0*	-	58.0

자료 : UN

주 : 한국은 2만 달러에 도달한 이후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평균치

⑤ (고용률 증가) 4만 달러 선진 9개국의 고용률은 3만 달러 도약기에 평균 68%, 4만 달러 도약기에 평균 69%, 2011년 현재 평균 70%에 달함

- 4만 달러 도약 9개국의 고용률은 3만 달러 도약기에 평균 68%, 4만 달러 도약기에 평균 69%, 2011년 현재 평균 70%에 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11년 현재 64%의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음
- 우리의 고용률은 2011년 현재 64% 수준에 머물고 있는바, 선진국 도약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68%, 중장기적으로 70% 수준의 고용률 달성이 필요함
- 고용의 유연안정성 제고를 통해 성공적으로 고용률 수준을 높였던 독일과 네덜란드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 독일과 네덜란드는 2011년 현재 각각 72.6%, 74.9%의 높은 고용률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과거 3만 달러 도약기에 비해 7%p 가량 높아짐

< 선진국들의 고용률 추이 비교 >

		고용률		
		3만 달러 도약기	4만 달러 도약기	2011년
4만 달러 도약 성공국	독일	65.5	65.5	72.6
	일본	68.1	69.3	70.3
	프랑스	60.9	63.8	63.8
	미국	72.0	72.8	66.6
	캐나다	69.3	72.9	72.0
	호주	68.7	72.2	72.7
	네덜란드	67.9	71.7	74.9
	스웨덴	81.3	73.0	74.1
	벨기에	57.5	61.1	61.9
	평균	67.9	69.1	69.9
4만 달러 도약 실패국	그리스	60.7	-	55.6
	이탈리아	53.3	-	56.9
	스페인	63.9	-	58.5
	평균	59.3	-	57.0
한국		63.3*	-	63.9

자료 : OECD

주 : 한국은 2만 달러에 도달한 이후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평균치

⑥ (높은 출산율) 4만 달러 선진 9개국은 합계출산율 1.7 이상을 유지하면서, 고령화를 늦추고 경제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

- (높은 출산율) 미국 프랑스 스웨덴 등은 합계출산율 2.0 내외를 유지하면서 경제의 활력 제고에도 기여하고 있으며, 선진 9개국 평균 합계출산율은 1.7
  - 미국, 프랑스, 스웨덴은 합계출산율이 2.0 내외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반대로 독일과 일본은 1.4 정도로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4만 달러 도달 국가들의 합계출산율을 보면 평균 1.7의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일본과 독일은 비교적 낮은 수준을 기록함
  - 우리는 합계출산율이 1.2로서 일본이나 독일보다 더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바, 선진국 도약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출산율을 1.7 이상으로 높이기 위한 영유아보육시설 확충과 일-가정 양립 등 '저출산 대책'이 시급함
  - 출산율 제고 정책에 있어서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꼽히는 프랑스를 참고하여 영유아 보육시설 확충과 육아수당 지원, 일-가정 양립 지원 등에 있어서 획기적인 정책이 마련되어야 함

- 프랑스는 1998년 제1차 오브리(Aubry)법에 의거, 임신 중 여성 근로자에게 유연근로 선택권을 부여하고, 휴가적치제도(time-banking system)를 도입하는 등 근로형태 및 시간의 유연성을 제고함으로써 출산율 제고에 기여

⑦ (사회적 자본) 투명성 지수는 평균 8.0 내외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신뢰와 질서 등 높은 사회적 자본으로 이어짐

- (높은 투명성 지수) 스웨덴 네덜란드 등 북유럽 선진국들은 투명성 지수(TI)가 9.0 내외로 가장 높으며, 선진 9개국은 평균적으로 8.0 이상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스웨덴, 네덜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은 투명성과 복지시스템, 사회적 합의를 통한 집단적 문제해결 등을 배경으로 높은 사회적 자본을 형성
  - 국가운영시스템에 대한 국민들의 전폭적인 신뢰는 부정·부패가 매우 적고, 제도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
  - 스웨덴의 살트셰바덴협약(1938), 핀란드의 사회협약(1993), 스웨덴의 산업협약(1997) 등은 길고 험한 진통을 겪은 후에 탄생했으며, 국민들은 상호 신뢰가 국민 전체에게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다준다는 확신을 갖게 됨

< 4만 달러 선진국들의 투명성지수(TI)와 합계출산율 >

	합계출산율		투명성지수(TI)	
	3만 달러 도약기	4만 달러 도약기	3만 달러 도약기	4만 달러 도약기
독 일	1.3	1.4	8.1	7.9
일 본	1.6	1.5	-	6.7
프랑스	1.8	2.0	6.8	7.4
미 국	2.0	2.0	7.7	7.6
캐나다	1.6	1.6	9.0	8.5
호 주	1.8	1.9	8.7	8.7
네덜란드	1.6	1.7	8.9	8.7
스웨덴	2.0	1.7	-	9.3
벨기에	1.6	1.8	6.3	7.3

자료 : TI International ; IMF

### 3. '4만 달러' 도약에 실패한 나라들(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의 교훈

- (실패의 교훈) 세 나라는 3만 달러 도약 이후 성장률이 급락하고 있으며, 내수비중이 위축되고, 제조업 비중이 급감했으며,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었고, 경상수지도 적자를 기록. 출산율과 투명성 지수(TI)도 매우 낮음

#### < 1인당 GDP 3만 달러 이후 정체국의 성장 추이 >

구분	1인당 명목 GDP		도달 시간	실질GDP 증가율	
	2만 달러	3만 달러	2만 ⇒ 3만	2만 ⇒ 3만	3만⇒ 2010년
그리스	2004년(20,860.5)	2008년(30,779.5)	4년	2.6	-3.4
이탈리아	1990년(20,119.5)	2004년(30,019.9)	14년	1.4	0.0
스페인	2003년(21,081.7)	2007년(32,168.2)	4년	3.6	-1.1

자료 : IMF.

주 : 년도는 최초 도달 시점이며, ( ) 내는 1인당 명목 GDP 기준임.

- (내수와 제조업 위축) 소비 비중 증가 속 투자 급감에 따르는 내수 부문 위축이 계속되고, 제조업 비중도 크게 하락함
  - 1인당 GDP 3만 달러 도달 시 GDP 대비 투자 비중은 그리스 24%, 스페인 31%, 이탈리아는 21%였으나, 2010년에는 각각 16%, 23%, 20%로 급감
    - 소비의 GDP대비 비중은 증가했지만 전반적인 내수 비중은 3만 달러 도달 시 그리스 115%, 스페인 107%에서 2010년 각각 109%, 102%로 축소
  -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경우 제조업의 GDP 대비 비중이 2만 달러 시 각각 23%, 17%였으나, 2010년에는 각각 17%, 13%로 크게 축소됨

#### < 1인당 GDP 3만 달러 이후 정체국의 부문별 GDP 비중 변화 >

구분	구분	소비	투자	제조업	서비스업	무역의존도
그리스	2만 달러(2004년)	88%	23%	9%	76%	54%
	3만 달러(2008년)	91%	24%	10%	79%	63%
	(2010년)	93%	16%	11%	79%	52%
이탈리아	2만 달러(1990년)	77%	22%	23%	64%	38%
	3만 달러(2004년)	78%	21%	19%	70%	50%
	(2010년)	82%	20%	17%	73%	56%
스페인	2만 달러(2003년)	75%	27%	17%	67%	55%
	3만 달러(2007년)	76%	31%	15%	68%	61%
	(2010년)	79%	23%	13%	72%	54%

자료 : UN.

주 : 명목 GDP 기준.

○ (재정 악화) 스페인을 제외한 그리스와 이탈리아는 국가 재정이 크게 악화

- 그리스와 이탈리아의 경우 재정수지 적자 상태가 지속되고, GDP 대비 국가 부채가 대폭 악화됨
- 그리스와 이탈리아의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중은 2만 달러 도달 시 각각 96.9%, 94.3%에서 3만 달러 도달 시 112.6%, 103.4%로 상승
- 양국 GDP 대비 재정수지도 각각 -7.4%, -11.4%에서 -9.9%, -3.6%로 적자 기록

< 1인당 GDP 3만 달러 이후 정체국의 재정건전성 >

구분	국가 부채 (GDP 대비 %)		재정 수지 (GDP 대비 %)	
	2만 달러	3만 달러	2만 달러	3만 달러
그리스	98.9(2004년)	112.6(2008년)	-7.4	-9.9
이탈리아	94.3(1990년)	103.4(2004년)	-11.4	-3.6
스페인	48.8(2003년)	36.3(2007년)	-0.2	1.9

자료 : IMF.

주 : 년도는 최초 도달 시점이며, ( ) 내는 1인당 명목 GDP 기준임.

○ (경상수지 악화)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모두 경상수지가 크게 악화

- 그리스와 스페인의 경상수지는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 도달 시 각각 연평균 31.5억 달러, 84.9억 달러 적자에서 이후 2010년까지 연평균 33.2억 달러, 95.8억 달러로 적자 폭이 확대
- 이탈리아의 경상수지는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 도달 시 연평균 3.4억 달러 흑자에서 이후 2010년까지 연평균 -44.2억 달러로 적자 전환됨

< 1인당 GDP 3만 달러 이후 정체국의 경상수지 변화 >

구분	경상수지 (10억 달러)		GDP 대비 비중(%)	
	2만 달러 ⇒ 3만 달러	3만 달러 ⇒ 현재(2010년)	2만 달러 ⇒ 3만 달러	3만 달러 ⇒ 현재(2010년)
그리스	-31.5 (2004-2008년)	-33.2 (2009-2010년)	-10.9 (2004-2008년)	-10.6 (2004-2008년)
이탈리아	3.4 (1990-2004년)	-42.2 (2005-2010년)	0.3 (1990-2004년)	-2.0 (2005-2010년)
스페인	-84.9 (2003-2007년)	-95.8 (2008-2010년)	-7.0 (2003-2007년)	-6.3 (2008-2010년)

자료 : IM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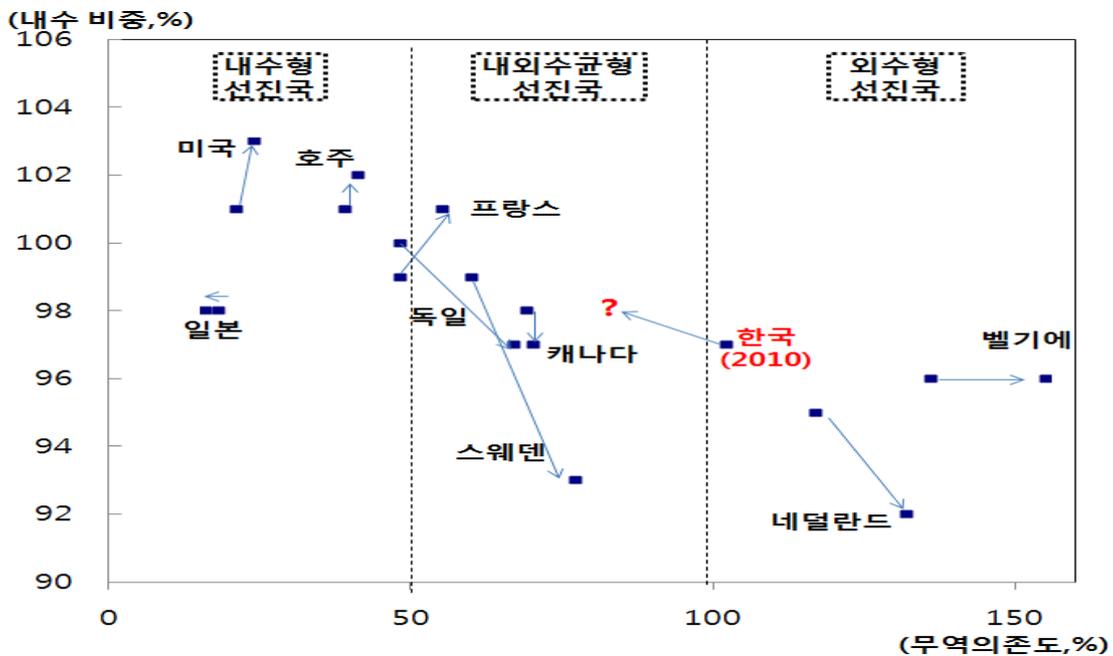
주 : 명목 GDP 기준.

○ (낮은 출산율과 투명성) 세 나라 모두 합계출산율이 1.4 내외로서 매우 낮은 수준이며, 이탈리아와 그리스의 투명성지수(TI)는 40이하로 낮음

#### 4. '4만 달러 선진국' 도약을 위한 전략과 목표

- (내외수균형 선진국 전략) 무역의존도 높고 제조업이 강한 한국경제는 내·외수가 조화를 이룬 내외수균형 선진국(독일, 스웨덴) 모델을 추구해야
  - 4만 달러 선진국의 '7가지 공통점'을 목표로 삼아,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고 재정 건전성과 경상수지 균형을 유지하는 등 경제 기초체력을 강화하고, 서비스업 비중, 고용률, 합계출산율, 투명성 지수 등 4가지 지표를 끌어 올림

< 4만 달러 선진국의 내수비중과 무역의존도 변화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주1 : 3만 달러 도약기에서 4만 달러 도약기로의 변화를 2개의 점과 화살표로 표시  
 주2 : 한국은 2010년 현재 무역의존도와 내수비중을 점으로 표시

- (기초체력 강화) 잠재성장률 제고, 재정 건전성, 경상수지 흑자, 제조업 경쟁력 등 경제의 기초체력을 강화하는 것이 선진국 도약의 선결 과제임
  - 4만 달러 선진 9개국의 경우 실질GDP 증가율을 제고하고, 국가재정의 건전성과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했다는 점을 참고하여, 우리 경제도 성장잠재력 제고, 재정 건전성과 경상수지 흑자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 1997년 말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크게 하락하고 있는 잠재성장률을 다시 4%대로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인적 자본 확충과 경제구조 고도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함

-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비율은 GDP의 30%대 중반에서 유지되고 있으며, 재정적자도 1% 내외에서 관리되고 있지만, 향후 복지확대 기초 속에서도 재정의 건전성의 기초는 계속해서 유지되어야 함
  - 1998년 이후 무역수지 흑자 기초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으며, 강력한 제조업에 기반한 대외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는 바, 이러한 기초가 계속해서 유지되어야 선진국 도약이 가능함
- (경제구조 고도화) 서비스업 비중 확대, 고용률 제고, 합계출산률 제고, 투명성 지수 제고 등 4가지 지표를 끌어 올리고 경제구조를 고도화<sup>2)</sup>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함
- 4만 달러 달성 국가들의 경우, 대부분 서비스업 비중이 확대되고, 고용률이 높고, 내수 부문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합계출산율을 높이고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
- ① (서비스업 비중 70%) 4만 달러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65%, 중장기적으로 70% 수준의 서비스업 비중을 달성해야 함
- 4만 달러 도달 9개국의 서비스업 비중은 3만 달러 도약기에 평균 68%, 4만 달러 도약기에 평균 71%, 2010년 현재 평균 73%에 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10년 현재 58%의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음
  -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 의료 법률 등 지식서비스 분야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기존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해외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함
  - 미국, 일본, 독일, 스웨덴의 경우 제조업의 경쟁력도 세계적이지만 서비스업의 높은 부가가치와 경쟁력이 국가경제의 균형을 잡는데 기여하고 있음
  - 미국의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은 78%로서 가장 높은 편이며, 일본과 스웨덴은 서비스업 비중이 낮은 편에 속했으나 최근 70%를 넘어섬
- ② (고용률 70%) 4만 달러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68%, 중장기적으로 70% 수준의 고용률을 달성해야 함

2) 현대경제연구원,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5대 분야별 '10+3' 정책제언', 한국경제주평 12-2, 2013.1.8 참고

- 4만 달러 선진 9개국의 고용률은 2011년 현재 평균 70%에 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11년 현재 64%의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음
- 하르츠개혁과 고용의 유연안정성 제고를 통해 성공적으로 고용률을 높였던 독일과 네덜란드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 독일과 네덜란드는 2011년 현재 각각 72.6%, 74.9%의 높은 고용률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과거 3만 달러 도약기에 비해 7%p 가량 높아짐

③ (출산율 1.7) 4만 달러 선진국들은 합계출산율이 평균 1.7로서 우리나라의 1.2에 비해서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

- 우리는 합계출산율이 1.2로서 일본이나 독일보다 더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바, 선진국 도약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출산율을 1.7 이상으로 높이기 위한 영유아보육시설 확충과 일-가정 양립 등 '저출산 대책'이 지속되어야함
- 프랑스는 1998년 제1차 오브리(Aubry)법에 의거, 임신 중 여성 근로자에게 유연근로 선택권을 부여하고, 휴가적치제도(time-banking system)를 도입하는 등 근로형태 및 시간의 유연성을 제고함으로써 출산율 제고에 기여

④ (투명성 지수 8.0) 우리나라는 투명성 지수가 5.5에 그치고 있는 바, 4만 달러 선진국들 수준인 8.0 정도로 높이기 위한 정책이 시급함

- 4만 달러 도달 국가들의 투명성 지수(TI)를 보면, 일본을 제외하면 대부분 8.0 내외의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음.
- 북유럽 선진국들의 전자정부 고도화, 정보공개, 솔선수범 등의 사례를 참고로, 신뢰와 투명성 등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고 투명성 지수를 8.0 수준으로 높이는 것이 시급한 과제

경제연구본부 김동열 수석연구위원 외 (dykim@hri.co.kr, 02-2072-6213)

<별첨> 최근 주요 경제지표

	경제성장률 (2011)	1인당GDP (2011)		GDP 구성항목(비중) (2010)				제조업 VS서비스업 (GDP대비) (2010)		경상수지 (2011)		재정수지 (GDP 대비) (2011)	국가채무 비율 (GDP 대비) (2011)	고용(%) (2011)		물가 (2011)	전체 투자 (GDP 대비) (2011)	국민저축 (GDP 대비) (2011)	투명성 지수 (2011)	출 산 율 (여성 1인당) (2010)	
		규모 (\$)	증 가 율	최종소비	총고정 자본형성	수출	무역 의존도	제조업	서비스업	규모 (\$십억)	G D P 대비			고 용 률	실 업 률						
4만 노골과 성공국	독일	3.1	44,111	8.9	77	17	47	88	21	71	203.9	5.7	-0.8	80.6	72.6	6.0	2.5	18.3	23.9	8.0	1.39
	일본	-0.8	45,870	7.0	79	20	15	29	19	71	119.3	2.0	-9.8	229.6	70.3	4.6	-0.3	19.9	21.9	8.0	1.39
	프랑스	1.7	44,007	7.5	83	19	25	53	12	78	-54.2	-2.0	-5.2	86.0	63.8	9.6	2.1	20.6	18.7	7.0	2.0
	미국	1.8	48,328	3.2	88	15	13	29	13	78	-465.9	-3.1	-10.1	102.9	66.6	9.0	3.1	15.5	12.2	7.1	2.1
	캐나다	2.4	50,496	9.1	80	22	29	61	11	69	-48.9	-2.8	-4.4	85.4	72.0	7.5	2.9	22.8	20.0	8.7	1.68
	호주	2.1	66,371	18.3	71	28	21	41	10	70	-33.5	-2.3	-4.4	24.2	72.7	5.1	3.4	27.2	24.9	8.8	1.92
	네덜란드	1.1	50,216	6.8	74	19	78	149	13	74	70.9	8.5	-4.7	65.2	74.9	4.4	2.5	18.1	26.5	8.9	1.79
	스웨덴	4.0	57,638	15.6	76	19	50	94	16	72	37.7	6.9	0.1	37.9	74.1	7.5	3.0	18.9	25.8	9.3	1.98
	벨기에	1.8	46,989	7.8	77	20	80	157	15	77	-5.1	-1.0	-3.9	97.8	61.9	7.2	3.5	21.8	20.8	7.5	1.84
4만 노골과 실패국	그리스	-7.0	26,735	-0.9	93	16	22	52	11	79	-29.4	-9.8	-9.1	165.4	55.6	17.3	3.3	14.5	4.7	3.4	1.44
	이탈리아	0.4	36,267	6.2	82	20	27	55	17	73	-71.7	-3.3	-3.8	120.1	56.9	8.4	2.9	19.6	16.4	3.9	1.40
	스페인	0.4	32,077	6.2	79	23	26	55	13	72	-52.2	-3.5	-8.9	69.1	58.5	21.7	3.1	21.5	18.0	6.2	1.39
한국	3.6	22,424	9.2	68	29	52	102	31	58	26.5	2.4	1.8	34.2	63.9	3.4	4.0	29.5	31.8	5.4	1.22	

자료 : IMF, OECD, UN, TI International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 주요국 성장률 추이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미국	1.8	0.1	2.5	1.3	4.1	2.2	2.0	1.3	3.1	-0.1	2.0
유로 지역	1.4	0.8	0.2	0.1	-0.4	-0.4	0.0	-0.2	-0.1	-0.6	-0.2
일본	-0.6	-7.3	-2.8	10.4	0.3	2.0	5.7	-0.1	-3.5	-	1.2
중국	9.3	9.7	9.5	9.1	8.9	7.8	8.1	7.6	7.4	7.9	8.2

주 1) 2013년 전망치는 IMF 2013년 1월 전망 기준

2) 미국, 일본은 전기대비 연율, EU는 전기대비, 중국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임.

□ 국제 금융 지표

구분	2011년말	2012년		2013년			
		6월말	12월말	2월 8일	2월 14일	전주비	
해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1.88	1.65	1.70	1.95	2.00	0.05%p
	엔/달러	77.66	79.37	85.86	92.68	92.94	0.26¥
	달러/유로	1.2955	1.2437	1.3222	1.3400	1.3356	-0.0044\$
	다우존스지수(p)	12,218	12,880	12,938	13,993	13,973	-20p
	닛케이지수(p)	8,455	9,007	10,395	11,153	11,307	154p
국내	국고채 3년물 금리(%)	3.34	3.30	2.82	2.72	2.73	0.01%p
	원/달러(원)	1,151.8	1,145.4	1,070.6	1,095.7	1,083.8	-11.9원
	코스피지수(p)	1,825.7	1,854.0	1,997.1	1,950.9	1,979.6	28.7p

□ 해외 원자재 가격 지표

구분	2011년말	2012년		2013년			
		6월말	12월말	2월 8일	2월 14일	전주비	
국제 유가	WTI	99.22	84.86	90.89	95.73	97.33	1.60\$
	Dubai	104.89	92.89	107.99	112.64	113.28	0.64\$
CRB선물지수	305.30	284.19	294.78	301.06	299.67	-1.39p	

1) CRB지수는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곡물, 원유, 산업용원자재, 귀금속 등의 주요 21개 주요 상품선물 가격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지수로 원자재 가격의 국제기준으로 간주됨.

□ 국내 주요 경제지표 추이

구 분		2011			2012			2013(E)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국민계정	경제성장률 (%)	3.8	3.4	3.6	2.6	1.5	2.0	3.1	
	민간소비 (%)	2.9	1.6	2.3	1.4	2.2	1.8	2.5	
	건설투자 (%)	-7.1	-3.0	-5.0	-0.3	-2.2	-1.5	2.2	
	설비투자 (%)	8.9	-1.1	3.7	2.6	-5.8	-1.8	4.8	
대외거래	경상수지 (억 달러)	81	184	265	138	295	433	285	
	무역수지 (억 달러)	153	155	308	110	175	285	277	
	수출 (억 달러)		2,736	2,816	5,552	2,750	2,730	5,481	5,845
		(증가율, %)	23.6	14.9	19.0	0.5	-3.0	-1.3	5.6
	수입 (억 달러)		2,582	2,662	5,244	2,641	2,555	5,196	5,568
		(증가율, %)	26.7	20.2	23.3	2.3	-4.0	-0.9	6.4
소비자물가 (평균, %)		3.9	4.1	4.0	2.7	1.7	2.2	2.5	
실업률 (평균, %)		3.8	3.0	3.4	3.6	2.9	3.2	3.3	
원/달러 환율 (평균, 원)		1,102	1,114	1,108	1,142	1,112	1,127	1,060	

주 : E(Expectation)는 전망치